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출장기간	2023. 5. 14.(일) - 5. 21.(일) [6박 8일]			
출장지	영국, 밀턴 케인즈			
출장목적	한-영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 (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 후원으로 진행된 [영-한 디지털&온라인 폭력] 프로젝트 중간점검 및 향후 협력 방안 모색			
경비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기관	영국 Open University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Open University/ObserVAW(젠더폭력 연구자 네트워크) 주최 디지털&온라인 폭력 세미나 발표 • Open University 젠더/성평등 정책 분야 연구자 면담 • 밀턴 케인즈 지역 가정폭력 보호 시설 방문 및 시사점 도출 • 국제 공동연구 성과물 도출을 위한 한-영 연구진 면담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불임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영국 Open University 단기 방문연구를 위한 영국
출장

출장 복명서

2023. 6.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1

출장 개요

□ 기간: 2023. 5. 14.(일) – 5. 21.(일) [6박 8일]

□ 장소: 영국, 밀턴 케인즈

□ 출장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출장배경 및 목적:

가. 영국의 연구혁신기구(UKRI)는 영국경제사회연구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와 예술인문연구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의 후원을 받아 ‘한-영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SSH)’이라는 명칭의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 시킴. 본 프로그램은 과거 제한적이었던 한국과 영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영 연구진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나.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한 온라인 & 디지털 폭력]을 주제로 본원이 영국의 Open University와 협력하여 제출한 국제 공동연구제안서가 채택되어, 현재 영국 Open University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기간: 2022년 2월-2023년 9월).

-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 영국 밀턴 케인즈에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본원의 이 미정 선임연구위원과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이 참가하였음.
- 2023년도에는 Open University의 Kim Barker와 Olga Jurasz 교수가 2차례 방한하여, 본원이 주최하는 연구자간담회(4월 예정) 및 국제 세미나(6월 예정)에 참가할 예정임.

다. 이에 더해, 영국 Open University 측은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본원 연구자 2인에 대한 단기 방문연구를 요청함. 이에, 2023년 5월 본원의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과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영국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음.

- 영국 Open University/ObserVAW(젠더폭력 연구자 네트워크) 주최 디지털&온라인 폭력 세미나 발표
- 국제 공동연구 성과물 도출을 위한 한-영 연구진 간담회 추진
- 방문 후 12주 이내에 ObserVAW 홈페이지에 워킹 페이퍼(5000-6000 words) 게시
- 당해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 발간(KWDI 브리프 등)을 위한 논의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5/14 (일)	○ 출국: KE 907 인천 10:55 ○ 도착: 런던 17:25 ○ 런던 히드로 공항 - 밀턴 케인즈 이동	인천 ⇒ 런던
5/15 (월)	○ 세미나 발표 준비 및 한-영 연구진 간담회 -오전: 세미나 발표 준비 -오후: 제1차 한-영 연구진 간담회 (단기 방문연구 및 세미나 프로그램 설명)	밀턴 케인즈
5/16 (화)	○ 세미나 발표 및 연구진 면담 -오전: Open Univ. 세미나 발표 -오후: Open Univ. Lisa Lazard, Rose Capdevila 교수 면담 (Gender Equal Interactions Online 연구 프로젝트 총괄)	밀턴 케인즈
5/17 (수)	○ 한-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방안 논의 -오전: Open Univ. Francesca Calo 박사 면담 (Understanding Diverse New Motherhoods Work Inclusion Experience 연구 프로젝트 총괄) -오후: 제2차 한-영 연구진 간담회 • Open Univ. 법, 인터넷, 테크놀로지 연구분과 소개 • Open Univ. 페미니즘, 법, 젠더 연구분과 소개 (국제 공동연구 기획 및 결과 확산 전략 수립)	밀턴 케인즈
5/18 (목)	○ 연구진 면담 및 기관방문 -오전: Open Univ. 경영대 연구 프로젝트 'Supporting diverse new motherhoods for work inclusion' 자문회의 참석 -오후: MK Act 방문 (밀턴 케인즈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단체)	밀턴 케인즈
5/19 (금)	○ 한-영 연구진 간담회 -오전: 제3차 한-영 연구진 간담회 (단기 방문연구 평가 및 향후 협력 전략 수립) -오후: 휴식	밀턴 케인즈
5/20 (토)	○ 밀턴 케인즈 - 런던 히드로 공항 이동 ○ 출국 KE908 런던 19:35 (인천 16:15)	런던
5/21 (일)	○ 인천 도착	인천

발표 1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 한국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 디지털화는 여성과 소녀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시민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동시에 기존의 구조적 불평등과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여성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됨.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온라인 기술로 촉진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결과 적극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발언하는 것이 제한됨.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여성 정치인, 언론인, 활동가 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며 여성의 정치 경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발표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 증가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된 국제 연구 동향을 리뷰함. 마지막으로, 향후 증거 수집을 위한 방법과 정책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을 타겟하는 온라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함.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법적 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입법화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다른 대응 방안에 비해 현실성도 떨어짐. 유네스코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온라인 폭력 철폐’ 연구는 크게 ‘민감화, 보호 조치 및 제재’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민감화는 인식제고를 통한 온라인 폭력 방지, 안전장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재에 해당하는 법률 및 규정 도입임. 다만, 실효성 있는 법률, 규정 및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여러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입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발표 2

온라인 그루밍: 법적 개념화와 한국의 법적 체계의 한계

- ICMEC(실종 및 착취아동을 위한 국제기구)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그루밍의 정의, 아동을 만날 목적으로 그루밍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 아동을 만날 목적이 아니어도 그루밍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 아동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2020년 법제화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대화’에 대한 모호성,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처벌 규정 차별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 법률상 사용된 언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이어서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한계로 나타남. 또한 위장수사가 합법화되었지만, 위장수사를 하는 형사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의자

가 불능미수를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함.

-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특성이 단순히 연령이나 성별 이외에 종교적인 이유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대와 20대 초반 여성으로 피해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가해자가 아니라면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에 대해 논의함. 영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구형되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타 국가의 경우 만 18세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는 것에 대해 다른 국가와의 차별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에 대해 논의함. 영국에서 최근 Online Safety Bill이 입법화 과정중에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해 여러 영국의 학자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고 한국과의 공통점이나 차별성, 또는 한국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3

연구진 면담 및 기관방문

1. Open Univ. 심리학과 Gender Equal Interactions Online 연구진 면담

□ 일시: 2023.5.16(화), 14:00~16: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Open Univ. 심리상담학과 Lisa Lazard 교수, 심리상담학과 Rose Capdevila 교수, 법학과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Gender Equitable Interactions Online 프로젝트 소개
 - Lisa Lazard와 Rose Capdevila 교수가 연구 그룹을 리드하고 있음.
 - GEiO 프로젝트는 4개국(독일, 아이슬란드, 스페인, 영국)에서 성별이 온라인 화상회의 및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 업무가 증가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 문제(발언 기회의 형평성 등)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동 프로젝트는 디지털 혁신이 직장에서 성불평등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증거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파트너 국가의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회의를 녹화하여 참가자들의 온라인 회의 참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시도함. 다양한 분석 수준에서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2. Open Univ. 경영대학 Understanding Diverse New Motherhoods Work Inclusion Experience 연구진 면담

□ 일시: 2023.5.17(수), 10:00~12: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경영학과 Francesca Calo 교수, 법학과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연구 소개

-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이민자와 난민의 통합 촉진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 2)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기여 평가; 2) 농촌 지역의 사회 혁신 강화 방안.
- 특히, 이주민/난민과 관련된 연구인 “Migrants and Refugees in Europe – Work Inte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2023)”는 양질의 일자리와 이주민/난민의 사회적 통합이 불가분하다는 것을 보여줌.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유럽 7개국의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분석한 본 연구는 Horizon2020 SIRIU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법적,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유럽을 선택하는 이주민/난민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 이주민/난민과 노동시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술하고 있는 Understanding Diverse New Motherhoods Work Inclusion Experience 연구과제와도 연결됨.

○ HORIZON 펀딩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가능성 논의

- 호라이즌 유럽은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주요 펀딩 프로그램으로 예산은 955억 유로(2021-2027)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함께 EU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EU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원칙적으로 EU 회원국 및 회원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나, 비EU 회원국과 교류도 확장되고 있음. 현재 HORIZON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비EU 회원국으로는 영국, 노르웨이,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경우 참여 가능성을 협의중임.

3. 경영대학 연구 프로젝트 (Evidence Cafe: Supporting Diverse New Motherhoods for Work Inclusion) 자문회의 참석

□ 일시: 2023.5.18(목), 10:00~12: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경영학과 Francesca Calo 교수, Wenjin Dai 교수, Fidele Mutawarasibo 교수 포함 10인

□ 주요내용

- 연구 배경: 이주 여성은 출산 후 각종 어려움을 겪음. 연구를 위해 밀턴 케인즈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동유럽 출신의 육아중인 여성을 100명 이상 인터뷰함. 대체로 여성은 육아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가사노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연구는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정부 보육 정책과 직장 내 다양성임. 두 번째 주제는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지원임. 세 번째 주제는 출산 및 육아를 경험한 이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암묵적 차별/무의식적 편견임. 마지막 주제는 이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의 역할임. 많은 여성은 출산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느낌. 특히, 지역에 소셜 네트워크가 없는 이주 여성은 이러한 느낌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 사회가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 자문회의 피드백: 정책입안자들에게 이 연구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주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유색인종을 상상하지만,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정책적으로는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중요함. 밀턴 케인즈에 이해 관계자 간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함. 또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챔피언의 역할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4. 밀턴 케인즈 가정폭력 지원 시설 MK Act 방문

□ 일시: 2023.5.18(목), 13:00~14:3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MK Act 대표, Olga Jurasz 교수 외.

□ 주요내용

- 기관 소개
 - MK ACT(2008년 밀턴 케인즈 시의회 공인)는 4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임. MK Act는 Milton Keynes 지역 내에서 16세 이상 피해자를 연령, 성별,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음. 현재 2개의 현장에서 28가구, 40~50명의 피해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위기 개입(CIS) - 헬프라인, 정보제공 등. 현재/과거 파트너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성 및 여성 피해자를 지원함. 예를 들어, 상시 헬프라인을 운영하며, 이외에도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 상담을 위한 상담사 등이 관련된 지원을 제공함.
 - 긴급 피난처 - 28가구를 위한 숙소 제공 (여성 피해자와 자녀에 한정됨)

-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 피난민을 위한 지원 서비스
- 그룹 지원 서비스 - Freedom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민족 배경의 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고안
- 교육 - 가정폭력지원 서비스 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 Fresh Start¹⁾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현재/과거 파트너를 지원하여 행동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 질의응답

-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적 비판 여부: 엄격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는 별개로(별도의 건물에서 다른 직원이) 운영함. 매우 엄격한 경계가 있음.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거쳐 기획했음.
- 피난처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생필품 바우처 등 생필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 이외에 일반적인 자금 지원은 밀턴 케인즈 의회를 통해 원활하게 조달됨.

4

업무 협의

1. 한-영 연구진 간담회(1차)

□ 일시: 2023.5.15(월), 14:00~16: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Kim Barker 교수,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단기 방문연구 일정 설명
- Open Univ/ObserVAW 세미나 프로그램 설명
 - 세미나 장소, 참석자 정보
 - ObserVAW 젠더폭력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및 향후 계획 공유

2. 한-영 연구진 간담회(2차)

□ 일시: 2023.5.17(수), 15:00~17: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Kim Barker 교수,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Open Univ. 법, 인터넷, 테크놀로지 연구분과 소개
 - 인터넷과 기술은 사회 각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정보 및 데이터 전송

1) <https://www.mkact.com/fresh-start/>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괴롭힘/폭력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동 연구분과는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기술혁신과 함께 부상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분과위원이 ‘Equity and New Technological Horizons’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기획해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

○ Open Univ. 페미니즘, 법, 젠더 연구분과 소개

– 동 분과는 법률에 대한 젠더적 분석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음. 분과는 영국 내외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냄. 또한, 분과위원들의 연구 결과가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 정부, 여성 및 평등 위원회, 법률 위원회 등에 인용되기도 했음. 연구 활동은 현재 다음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젠더와 기술
- 여성과 소녀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폭력(VAWG)
- 젠더와 형법
- 젠더와 법조계

○ 향후 본원-Open Univ. 연구분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

3. 한-영 연구진 간담회(3차)

□ 일시: 2023.5.19(금), 9:00~10:00

□ 참가자

○ 본원 참가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정연주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Open University 참가자: Kim Barker 교수, Olga Jurasz 교수

□ 주요내용

○ 단기 방문연구 프로그램 평가

○ 2023년 6월 개최 국제세미나 관련 협의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주제 및 패널 구성
- 국내 기관방문/연구진 면담 추진

○ 영국 UKRI 후원 사업 종료 후 양 기관 협력 방안 논의

5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및 시사점

○ 세미나

- 한국의 여성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과 그 심각성, 한국의 온라인 괴롭힘 법제화에 대해 Open University 법대 교수들과 함께 논의함.

젠더폭력으로서의 문제의식과 함께 법적 제재의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었음. 법제가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도 법제의 실행력에 대해서도 학계의 관심이 필요함. 영국에서 혐오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어서 처벌이 쉽지 않음. 혐오범죄의 맥락에서 여성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대한 언어폭력을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 관점이 아니라 가해자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경우, 사실상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루밍 이후 성착취가 발생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보임. 그러나 성적인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화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실제로 처벌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하며,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국경과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인 만큼 보호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나이에 대해서도 연령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연구진 간담회 및 기관방문

- 영국 내에서는 Online Safety Bill이 입법화되고 있고, Open University의 많은 연구자들이 단순히 온라인 그루밍이나 온라인상 성폭력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터넷에서의 신체상(body image)과 여성성, 청소년의 성문화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 인터넷 활용율이 높고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높는데 그에 반해 온라인 관련 연구는 폭력 피해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 인터넷 문화 전반으로 연구 영역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 MK Act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성과로 보여짐.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로의 복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 등을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시설에서는 쉼터 거주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자율의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거주자의 역량 강화(empowerment)와 거주자간의 네트워킹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쉼터의 경우 여성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남성 피해자에게는 호텔에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노력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업무협의

- Open University와 KWDI의 연구진이 만나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UK and South Korea social science, arts, and humanities connections) 종료 후 온라인&디지털 폭력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본 프로그램은 한국과 영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영 연구진 간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금번 프로그램 종료 후 편당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함. 이에, 향후에는 타 국가들을 네트워크에 포함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인문사회과학 연결 프로그램을 계기로 양 기관이 향후에 어떻게 협력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함. 구체적으로, 본원 연구과제에 자문위원/집필진으로 참여, 기존 연구 협력 문서 이외에 MOU 체결, 국제공동포럼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음.